

[ 사회 ]

2009년부터 토익·토플 대체

‘국가 영어시험’ 치른다

토익이나 토플, 텡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영어능력 평가 시험이 2009년 하반기부터 치러진다. 교육부는 30일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2009년 하반기부터, 일반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각각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및 시행을 담당할 가정 ‘한국 영어능력평가재단’은 올해 중 설립된다. 시험은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 제점 용이성 등을 감안

해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INTERNET-BASED TEST)으로 실시된다. 연 최소 4회 이상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응시료는 토익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평가재단은 기존 영어 시험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희망 대학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이 참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되며 향후 응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기존 영어능력 평가시험은 고교와 대학진학, 대학의 학점 인정, 졸업요

건,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공·사기업 취업 및 승진 등에서 2006년 기준 269만 명이 응시하는 등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토익과 토플 등 해외개발 영어시험이 응시자 수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76%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초중학생의 각종 영어시험 응시자수는 2006년 56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민간 영어시험 공인제도를 통해 국내개발 민간 영어시험이 5개(PELT, TESL, TEPS, ESPT, MATE) 공인돼 시행돼 왔으나 해외개발 시험을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전남 공예품대전 잡음 관련 심사위원 위촉 기준 재정비

도, 공정성 확보키로

전남도가 주최하는 공예품대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가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불투명한 심사관행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는 공모전 주관 단체 임원들이 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회 주관 단체인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2004년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전을 위탁받은 공예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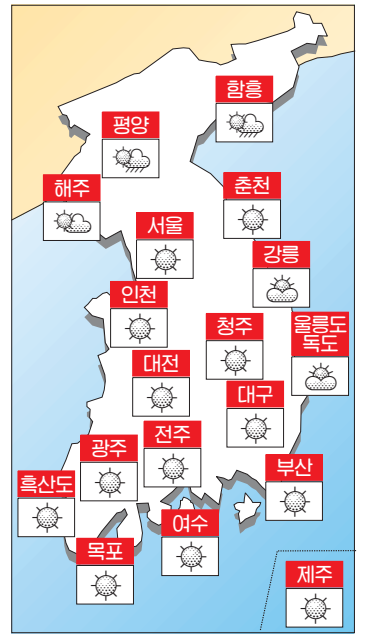
측도 당연직 심사위원제를 수년 동안 운영함으로써 사전로비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실시한 제37회 공예품대전과 10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는 심사위원 10명 중 ▲광주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전남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청 ▲관광공사 관계자 등 당연직 4명이 참여했다. 한편 전남도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심사위원 위촉기준 재정비 ▲심사위원 친인척 출품시 심사위원 배제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자 penfoot@kwangju.co.kr

길을 때마다 땀방울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7월 31일 (음 6월 18일) 전국날씨

Table with 3 columns: Location, Weather, Temperature. Includes locations like 서울, 부산, 광주, etc.



서울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부산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제주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Table with 7 columns: Day, 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Includes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여름 휴가철 집단속 잘하세요”

광주·전남 7월 빈집털이 146건이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7월 들어 146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했다.

경찰은 8월 말까지 빈집털이범에 집단속속에서 나서는 한편 ▲집을 비운 빈 집 단속 철저 ▲도시가스관·에어컨·방범창 등 폐쇄 ▲신문·우유·우편물 등 처리를 사전 옆집에 부탁하기 ▲휴가를 떠날 때 관할 지구대나 경비업체의 비상 연락처 메모 등 ‘휴가철 보안 5계명’이 적힌 단장지를 작성,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들노래 ‘만드리’ 풍년 기원 30일 광주시 서구 세하동 들녘에서 열린 ‘제9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에서 서창농협 풍물팀 등 160여 명이 들노래 ‘만드리’를 재현하며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만드리’란 논을 마지막 김매기인 ‘만도리’에서 유래한 말로, 세 번째 김매기를 하는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에 불렀던 노동요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진해 ‘갈따구 습격 사건’ 17억 배상

환경분쟁 사상 최고액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갈따구와 물가파리 폐기 인근 마을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 신항만 건설주체인 해양수산부가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해시 용동·용전동 일대 9개 마을 주민과 상인 1천357명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유해곤충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해수부가 17억6천3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배상금액은 거주기간과 위치, 피해 정도, 건물·선박·차량 피해, 상가의 영업손실을 모두 고려해 개인사정에 따라 최대 8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피해를 처음 인정한 사례이며 단일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대액 배상 결정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신항만공사 착공 후 바닥을 깊게 만들기 위해 퍼낸 흙(준설토)을 2003년 10월부터 용동 투기장에 쌓았는데 준설토 속에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고, 투기장의 기존 바닷물이 담수화된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갈따구와 물가파리가 대량 발생했다. 해충의 사체와 조류의 배설물에 의한 건물 피해 배상금은 1m당 5천원, 선박과 화물차의 세차비용은 1주일당 5천원, 승용차는 1만원으로 계산됐다. /연합뉴스

‘대입 복수지원 위반’ 1,672명 적발

8월 6일에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거쳐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는 1천672명으로 지난해 2천85명보다 413명 줄었고 입학취소 예정자는 지난해 94명보다 14명 감소했다. 지원방법 위반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인한 경우가 1천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80명이 입학 취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는 상담 오류 또는 본인 모르게 부모 등이 원서 접수해 위반한 사례 등이 265명, 대학

측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례가 177명, 기타 5명 등이다. 대학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79개교에서 모두 177명이 발생했다. 대학 측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입학설명회나 학교 홍보 방문시 등 전형기간 외 원서를 접수하게 된 사례 21명, 학생지원 시기와 달리 대학이 잘못 접수한 경우 53명, 대학이 전형일정을 위반한 경우 37명, 대학의 업무 소홀로 인한 지연처리된 경우 58명 등이 포함돼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행위를 초래한 대학은 사안에 따라 입학 기관 경고 조치하고 2008학년도 전형부터 대학 측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자가 나올 경우 해당 인원만큼 2009학년도 모집 인원을 감축키로 했다. /연합뉴스

고려대 내신 실질반영률 17.96% 확정

고려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일 반전형 일반선발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17.96%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려대는 총 1천점 만점(내신 500점, 수능 400점, 논술 100점)을 기준으로 할때 내신 기본점수로 470점을, 수능 기본점수로는 268점을, 논술 기

“사촌과 결혼 인정음”

파키스탄 귀화인 호소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사촌동생이자 아내의 입국을 거절당한 파키스탄 귀화인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난 2005년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임란알리(37)씨는 올 3월 파키스탄에서 사촌 여동생과 결혼했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온 임란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 부인의 비자발급을 위해 4월 호주등본 등 각종 서류를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보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받았다. ‘3촌 이내 근친혼’만 금지하는 파키스탄과 달리 한국은 ‘8촌 이내 근친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 임란씨는 진정서에서 “파키스탄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혼인을 인정해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1등 여행사', '광주에서 바로가는 여름휴가!', and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vel options.